

건강 칼럼

작은 소화불량 · 튀어나온 배... '난소혹' 원인일 수 있어

난소는 난자를 생성하고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성의 주요 생식기관이다. 좌우에 한 개씩 존재하고 비교적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문제가 생겨도 별 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늦게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곳이다.

난소는 아몬드 모양으로 3~4cm 정도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곳에 혹이 있거나 암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은 바로 난소낭종으로, 난소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혹에 해당한다. 양성 종양이기에 난소암처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그 크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난소의 위치와 크기로 인해 난소낭종이 있어도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증상 또한 일반적으로 생리 관련된 증상이거나 복부가 일명 똥배처럼 튀어나오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것 등

이다. 부정출혈, 생리불순, 생리과다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난소낭종을 포함한 여성 질환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난소낭종이 거대해지면 골반을 벗어나 복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랫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고 소화불량을 경험한다면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난소혹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며, 크기가 크지 않고 작다면 제거를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 다만 일부

소멸하지 않으며 8cm~10cm 이상으로 크기가 큰 경우, 내부에서 꼬이거나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크기의 난소혹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는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혹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할 경우 그 크기에 따라서 낭종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만약 난소낭종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난소낭종은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혹의 크기, 모양, 종류, 고형

성분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난소낭종이 난소암일 확률은 1% 미만으로 드물지만 검사를 통해 양성, 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난소 초음파 검사 외에도 정밀 혈액난소종양표지자 검사, 난소암 위험도 검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도 같이 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검사를 하는 병원에서 상급병원 연계를 통한 진료를 하는 지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양성으로 진단받은 난소혹은 난소 절제술, 경화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 가능하다. 경화술의 경우 낭종 내부의 문제를 야기하는 액체를 흡인하여 제거, 액체 분비를 하는 세포를 파괴하여 정상조직으로 흡수돼 사라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만 난소낭종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고, 생겼다가도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치료를 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윤혜정

서리플성모여성의원 원장

사설

어느 조합장의 보조금 사건

정읍의 한 지역농협에서 있었던 수상한 돈거래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농업 법인이 주문한 공 파종기 구매의 대가로 이른바 리베이트 1천2백여 만 원이 발생했다.

이 돈을 명목상 아무 상관도 없는 농업 조합장이 수령한 것이다. 농기계 구입비의 절반은 시 보조금이었다. 해당 농업회사 법인은 현재 지역농협 조합장이 취임 직전까지 대표를 역임했던 회사다.

해당 영농법인은 지난해 6월 공 파종기를 구매해달라고 지역농협에 의뢰했다. 구매 대금은 6천여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협 조합장에게 구매 대금의 20%인 1,216만8천 원이 도로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다.

농협은 관행적으로 조합원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리베이트 성격의 일명 '교육지원사업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기계 구매를 발주한 농업 법인이 받아야 할 돈이었

지만, 서류상 전 대표에 불과한 농업 조합장이 이 돈을 수령한 것이다.

정읍시는 지난해 문제의 농업 법인을 '농촌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2억원의 사업비를 선정했다. 해당 법인은 이 보조금 가운데 3천만원, 자기부담금 3천여만 원을 더해 농기계를 구입했다.

문제의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 당선 직전 농업 법인 대표를 친인척에게 넘겼다. 하지만 농업 법인 직원들은 여전히 조합장을 대표로 부르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을 잘 아는 조합장이 농협에 공 파종기 구매를 의뢰하고, 뒷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조합장은 감사가 시작되자 9개월 만에 교육지원 사업비 1,216만 8천 원을 반납했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지적이 많다.

새만금개발 곳곳 파행

3천억대 새만금 관광개발이 허위 서류 한 장에 무산되면서 파장이 크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계획인데다 검증이 1년 뒤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다. 개발에 속도를 더하기는커녕 기약 없는 협상만 거듭하고, 협상 지점까지도 제멋대로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움이 기대된다며 3천억대 골프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허위 서류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본 계약을 맺기 전, 사업 계획을 검증한다는 '우선협상' 과정과 1년 넘도록 진행하다 이상을 발견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내부 지침으로 정한 우선협상 기한은 3개월에 불과했다. 지침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 계획을 검증했다면 2년 가까운 시간 낭비는 막았을 거라는 뜻이다.

이처럼 기약 없이 흘러가는 불확실한 개발 계획들이, 여전히 새만금에 넘쳐나고 있다. 이곳은 무려 1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됐던 땅이다. 54홀 대규모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대기업 건설사가 주축인 민간사업자가 선정됐지만, 3년 가까이 우선협상만 이어가고 있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시간만 흘러보내는 모습이다. 새만금 개발청의 사업자 선정 지침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언제까지 우선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것이다.

최근 박세리씨 부친의 허위 서류 등 각종 논란으로 백지화됐거나 무기한 협상이 이어지는 대규모 새만금 개발 사업은 3건이다.

투자를 이행하면 이들 모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해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지부진한 태양광 사업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위 참석 후 경찰에 이끌려 나가는 툰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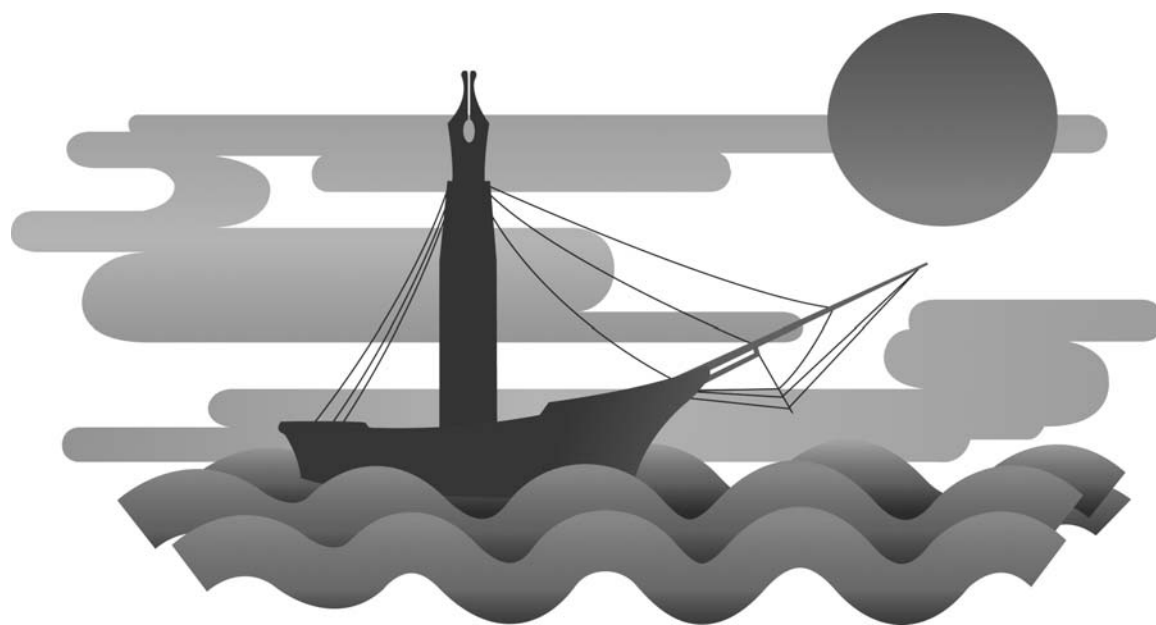


스웨덴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환경단체 '멸종저항'(XR)이 주최한 폭풍 경고 시위에 참석한 후 경찰에 이끌려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학교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 서쪽 알사티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학교 교실을 살피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시대에 있는 2개의 학교를 공습해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